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 박람회 개최

4~6일 전주 팔복예술공장 일원서 '지역 활성화, 문화예술·관광에서 답을 찾다' 슬로건 개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3일 전주 관내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6일 사흘간 전주 팔복예술공장 일원에서 (사)전국 지역문화재단연합회(회장 이홍길)와 공동으로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 단위 행사 유치 사업으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회장 이홍길)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시장 우범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장병국)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회장 이창기), 서울사이버대학교, 한국스마트관광협회가 후원한다.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전국 139개의 지역문화재단이 연대해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는 '지역 활성화, 문화예술·관광에서 답을 찾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박람회 주요행사 제1세션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문화예술·관광의 역할'을 주제로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기조발제와 권재현 안양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이어진다. 제2세션은 '변화하는 지역문화와 미래를 향한 도전'을 주제로 양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김복한(서울연구원 경제경영 연구실장) 박사가 발제를 맡아 각기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역의 현재를 진단한다.

특히 전국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국악밴드 이상>의 오프닝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 박람회' 포스터

공연을 시작으로 소멸 위기 대응 지역활성화 사업인 <강진군 조만간 프로젝트>, <영주시 피넛 스튜디오>, 지역을 대표하는 감성밴드 <고니밴드>와 홀리캠과 그룹인 <아벨라테>, <이리 농악보존회>의 공연이 펼쳐진다. 마지막 날엔 만화가이자 식객으로 유명한 허영만 선생의 '만화인생 50년, 그리고 지역의 맛'이라는 주제로 <명사 초청 토크콘서트>가 전주MBC 이충훈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진행된다.

박람회 행사가 진행되는 3일 동안 팔복예술공장 A동 전시관에서는 25개 지역문화재단 사업 우수사례가 상설 전시된다.

또한 팔복예술공장 야외 공간에 부스를 설치해 <트래블 장터>를 열고, 전국 문화관광 관련 단체·기업들의 홍보와 더불어 지역특산물·기념품 판매 장터를 운영한다. 더불어 VR메타버스 등 시민 참여이벤트도 진행된다.

이홍길 회장은 "2024년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 박람회를 전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우범기 전주시장님과 전주문화재단, 그리고 전주 시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박람회는 지역문화의 뿌리인 문화예술과 그 열매인 관광이 함께 해 지역 활성화의 답을 찾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박람회가 지역문화와 관광이 상생의 길을 찾고, 지역문화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개막행사와 더불어 지역문화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문화재단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지역문화재단의 우수사업은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따라 문화매개, 지역소생, 문화기획, 재원조성, 문화협치, 문화향유 등 6개 분야에서 총 25개의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비롯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상,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상,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상 등 총 25개 재단의 우수사업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성황

도내 초·중·고 대상 11월까지 진행... 희망학교 추가 신청 가능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2024년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예연구사가 직접 들려주는 우리 지역 역사 이야기 고고학, 인장, 민화 수업으로 진행되며, 토기복원 및 인장 만들기·민화 예코백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올해 5월부터 진행한 찾아가는 박물관은 현재까지 6개 학교 429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인장 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우리 지역 인장의 역사와 다양한 인장의 종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며 "내 이름이 적힌 인장을 만들어 너무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박현수 학예실장은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농어촌 및 문화소외지역의 학생들이 다양한 박물관 교육 및 체험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넓히고, 학습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찾아가는 박물관'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문화소외지역 학교,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올해 11월까지 진행된다. 참여 신청 및 문의는 전주대 박물관(063-220-2158~9)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태권도박물관, "태권도 자료 기증 받아요"

작년 기증 자료 활용 '한국군 태권도 해외 진출사' 기획전시 8월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 국립태권도박물관(관장 김태균)은 태권도 관련 자료와 도서를 기증받는다.

국립태권도박물관은 태권도 관련 유물과 메달, 도복, 서적 등 3만 5천여 점 보유 중인 태권도 전문 박물관으로, 박물관 내 기증자 예우 공간 및 태권도 라키비움을 통해 기증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기증받은 자료는 태권도 관련 문헌과 도복, 사진, 증명서 및 대학 태권도학과 수업 관련 서적 등 태권도 관련 자료 일체가 대상이다. 수집된 자료는 국립태권도박물관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심의를 거친 자료는 국립태권도박물관 상설 및 기획 전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으로 자료 가치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도에 따

라 보존 처리도 진행한다. 또한, 기증받은 자료 중 도서는 국립태권도박물관에 구축된 태권도 라키비움의 지식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기증받은 주월 태권도 교관단 자료를 활용해 한국군 태권도 해외 진출사를 살펴보는 기획 전시를 오는 8월에 개최할 예정이다"며 "개인, 단체에서 소장 중인 각종 자료를 국립태권도박물관에 기증해 더 많은 태권도인들과 국민들에게 태권도를 알릴 수 있는 만큼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증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태권도진흥재단 및 국립태권도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국립태권도박물관(063-320-0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19일 공연장 상주단체 '조국의 노래'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 두번째 공연으로 아름다운 강산(조국의 노래)가 7월 19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김제시(시장 정성주)와 전문예술법인 사)드림필이 전라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1년간 김제시민과 관객을 위한 공연을 선보인다.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획된 공연으로 우리나라의 아리랑, 조국찬가, 아리랑랩소디 등 민족성을 노래한 곡들을 선정해 우리나라 곡 뿐 아니라 각 나라 클래식 작곡가들의 음악을 통한 애국심을 엿볼 기회가 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핀란드의 독립운동을 위한 모금행사의 일환으로 상영된 역사적 배경이란 연

극작품을 위해 쓰인 시벨리우스의 작품 'Finlandia'를 시작으로 지역을 소재로한 초연창작 작품인 작곡가 박은선의 '함깨아리랑'을 국악인 경보비가 선보이며,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하 김제 만세운동과 독립을 위한 희생의 고귀한 넋을 위로하고, 그분들이 지켜낸 모습을 함축해 담은 '지평선의 노래'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소프라노 김리라, 바리톤 김동식이 'Champion', '레미제라블' 등을 노래하고 김제시립중창단이 '아름다운 강산'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권 배부는 오는 9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무료 배부한다. /김제=곽도태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